

1면에서 이어짐 →

국제캠 교무처 김성수 처장은 “PBL을 4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려 한다”며 “1학년 때는 문제 제시·인식·발견, 2학년 때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익혀 나가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해결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에는 전공 심화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 PBL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학과 수업에 PBL 수업을 도입한 박상희(시각디자인학) 교수는 PBL 수업의 이점으로 자기 주도 학습과 실무 능력을 꼽았다. 박 교수는 “PBL은 학생이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협력하며,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며 “PBL의 ‘P’는 문제(Problem), 과제(Project), 실천(Practice),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PBL 수업이 개선되기 위해선 다양한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 중심 교육 환경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협력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학생, 외부 협력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로 상담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을 파악해 상담과 진로지도를 한다. 희망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학생설계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해 담당 교수와 학생설계 전공을 수행하게 된다. 김 처장은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은 1년 동안 교양을 더 듣거나 타 단과대 전공을 듣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과 상담을 계속해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캠퍼스

학부명	자율전공학부	
1학년	교양+고유 커리큘럼	
2학년	희망전공 선택	글로벌리더 전공 ·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국제 캠퍼스

학부명	자유전공학부	
1학년	교양+고유 커리큘럼	
2학년	희망전공 선택	PBL 중심 신규전공(개설 검토)

교과

1. (가칭) 미래교육 I & II

- 온라인 콘텐츠 + 강의
- AI리터러시/전환교육 및 PBL 교육
-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적용

2. (가칭) 전공탐색 I & II

- 전공탐색 I
 - Flipped Learning : 온라인 콘텐츠 + 실시간 대면 강의
 -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토론 및 상담 수행
- 전공탐색 II
 - 단과대학 별 전공 소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교과

1. 계열별 전공 탐색

- 계열별 전공 소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학업/전공 탐색
- 콘텐츠는 학과별 소속 교원 및 재학생의 참여를 통해 제작

2. 명사 초청 특강

- 1학년 1학기 교양 자유이수 과목으로 개설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를 선도하는 명사초청

3. 전공 박람회 워크숍

- 대학별 전공 설명회, 학과 및 실험실 방문, 전공 수업 참관
- 적성 검사 및 소속감 고취 프로그램 진행

학사제도 개선 이뤄져
수강신청 제도 손볼 수도

다만, 인기 학과 쏠림 현상 방지와 유연한 전공 선택을 위해 학사제도 개선은 필수다. 학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혁신위원회는 ‘크로스리스팅 활성화’와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를 제시했다. 크로스리스팅은 타 학과 개설 전공과목을 수강할 시, 본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로 포인트제, 우선배정제, 다차 지망제 등을 검토 중이다. 포인트제는 모든 학생에게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학생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과목에 포인트를 할당한다. 듣고 싶은 과목 일수록 높은 포인트를 할당하고, 학교에선 포인트가 높은 학생 순서대로 수강 인원을 제한한다.

우선배정제는 우선권을 정해 특정 과목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성수 처장은 “우선 배정제는 포인트제의 단순화 버전”이라며 “만약 특정 영역 교양을 수강했고, 학

생이 해당 영역 교양을 다시 신청하면 해당 영역 우선권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다차 지망제는 잔여석을 순차적으로 여는 시스템이다. 김 처장은 “예를 들어, 처음에 100%를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만 배정해 남은 잔여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신청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강신청 제도 개선은 무전공 제도 안착을 위해 검토 중이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학교 수강신청 제도 전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좁게는 교양 과목에만, 넓게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것 같다”며 “무전공에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규모로 적용할 것인지 는 총학생회, 정보처, 학사지원팀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 개 방법 중 학교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 수강신청에 부담을 더는 방식을 구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정의 경우, 기존 자율전공학부 행정실에 더불어 자유전공학부 행정실을 신설한다. 행정실장, 직원, 계약직, 조교, 상담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양캠은 공통으로 자율·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와 전공탐색 교육위원회를 갖는다. 행정실과 운영·교육위원회를 위한 전용 공간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보영 차장은 “공간 개편에 관해선 10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사 초청 특강, 전공탐색 등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신입생 전공 탐색 지원책도 마련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열별 전공 탐색 ▲명사 초청 특강 ▲전공 박람회·워크숍을 계획했다. 계열별 전공 탐색에선 학과별 소속 교원과 재학생이 직접 참여해 계열별 전공 탐색 콘텐츠를 제작한다. 명사 초청 특강은 1학년 1학기 교양 자유이수 과목으로 개설해 명사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공 박람회·워크숍에선 대학별 전공 설명회, 학과 및 실험실을 방문해 전공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한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교육혁신연구위원회 2기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혁신위원회 2기는 9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무전공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Ch

대학주보

+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